

##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이중 담론

백경선\*

### <차례>

1. 들어가며
2. ‘이도’가 ‘세종’이 되기까지: 역사 해체와 영웅서사
  - 2-1. 호명된 이도와 영웅성 강화
  - 2-2. 역사 해체와 대결구도 강화
3. 저항 담론 너머의 지배이데올로기
  - 3-1. 대중 욕망과 저항 담론
  - 3-2. 영웅서사와 역사, 그리고 지배이데올로기
4. 나오며

### <국문초록>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역사드라마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에 집중하면서 이 드라마의 저항적 성향을 논하였다. 본 논문은 담론의 중층성이란 대중서사의 보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 깊은 나무>의 저항적 성향과 함께 지배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분석하고, 이중 담론을 통해 드라마의 의미가 어떻게 굴절되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뿌리 깊은 나무>는 역사 기록의 빈 칸에 주목하면서 의도적으로 역사를 해체하는데, 특히 세종을 낮설게 만들었다. 세종에 대한 재해석은 그를 ‘이도’로 호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드라마는 위대한 왕으로서의 세종 대신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이도를 소환하고, 역사 기록을 왜곡하면서 이방원과 정기준을 이도의 반대편에 위치시켰다. 이로써 이도의 고난 극복 과정(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는 과정)과 이도와 적대자의 대결구도를 극대화하며 영웅서사를 강화하였다.

고난 극복 과정에서 설득과 통합을 강조하고, 주요 조력자로서 백성인 소이와 강채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흥미로웠다. 이는 지금-여기 대중의 욕망을 반영한 것으로 이 드라마가 기존 역사드라마와 차별되는 지점이었다. 이 지점이 부각되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저항적 담론을 생산하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앞서 드라마는 역사를 해체함으로써 지금-여기 대중의 욕망을 반영하는 동시에 영웅서사를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영웅서사가 강화되면서 드라마는 저항 담론 너

머로 지배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지금-여기 권력의 아래에 있는 대중의 욕망과 역사 속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의 욕망이 만난 판타지이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 혹은 영웅서사라는 한계에 부딪치면서 완벽한 판타지가 되지 못하였다.

주제어 : 대중 욕망, 뿌리 깊은 나무, 세종, 역사, 영웅 (성장) 서사, 이도, 이중 담론, 저항 담론, 지배이데올로기, 집합기억,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 1. 들어가며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sup>1)</sup>는 이정명이 쓴 동명의 소설<sup>2)</sup>을 각색한 것으로 일반적인 각색 수준을 넘어 많은 변화를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주인공의 전환이다. 원작소설(이하 소설)의 주인공이 궁중 내에서 일어나는 연쇄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검사복 강채운인 반면 드라마의 주인공은 소설에서 그리 비중이 크지 않았던 세종으로 바뀌었다.<sup>3)</sup> 주인공의 전환은 서사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소설이 강채운에 의해 한글 창제와 관련된 살인사건의 진모가 밝혀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추리서사구조였다면, 드라마는 세종이 온갖 반대와 장애를 극복하고 한글 창제와 반포에 이르는 과정에 집중한 영웅서사구조를 지닌다. 드라마는 세종의 고난 극복 과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설에는 없는 이방원과 정기준을 새롭게 등장시키고 세종의 반대편에 위치시킨다. 특히 소설에서 세종의 비밀 지령을 받아 짐승 사체를 해부하는 역할에 머물렀던 백정 가리온을 이용하여 탄생된 정기준이란 허구인물은 흥미롭다. 백정 가

1) 김영현·박상연 극본, 장태유·신경수 연출, 이정명 원작, SBS, 2011.10.05~2011.12.22, 24부작. 이후 <뿌리 깊은 나무>라 함은 텔레비전 역사드라마로서 그것을 말한다. 이와 구별하기 위해 원작소설로서의 <뿌리 깊은 나무>의 경우 ‘소설’이란 수식어를 생략하지 않기로 한다.

2) 이정명, 『뿌리 깊은 나무』 1·2권, 밀리언하우스, 2006.

3) 소설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은 1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점, 즉 집현전 학사의 세 번째 죽음이 발생한 지점에서 처음 등장한다.

리온으로 위장하여 살던 정기준의 정체가 밝혀진 이후 정기준과 세종의 팽팽한 대결구도는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주요 서사로 작용한다. 한편 이 방위과 세종의 대결구도는 드라마 초반의 긴장감을 형성한다.

지나간 역사를 다룬 역사드라마가 지금·여기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역사가 갖는 현대적 의미 때문이다. “사극이 끊임없는 역사왜곡 시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곳곳이 존재하는 힘은, 과거의 인물과 사건을 소환하여 현재의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대중들의 사회심리, 욕구·욕망에 있<sup>4)</sup>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드라마는 점점 역사로부터 멀어지고 지금·여기와 가까워지고 있다. 강채윤에서 세종으로 주인공이 전환되면서 드라마는 지금·여기와 더욱 가까워진다. 현재적 재창조는 세종을 ‘이도’로 호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드라마는 조선조 역대 임금 중 가장 뛰어난 성군이자 천성적으로 효성이 지극한 호학의 군주<sup>5)</sup>라는 집합기억<sup>6)</sup>의 ‘대왕’ 세종을 소환하지 않는다. 대신 불완전하고 나약한 ‘개인’으로서 “도망치는 한심한 놈”이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소심한 겁쟁이”인 이도를 소환한다. 세종의 업적을 강조하며 그를 신성시하는 대신 그의 고뇌와 갈등을 통해 세종을 인간적으로 그려내기 위함이다. 드라마는 한글 창제라는 거대역사(History)를 서사의 중심에 두되, 역사 기록의 빈 칸<sup>7)</sup> 한글 창제의 과정과 그 이유

4) 이영미(2008), 『한국인의 자화상 드라마』, 생각의 나무, 187면.  
 5) 안재순, 「세종대왕의 윤리사상」, 『세종학연구』 제12·13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63면 참고  
 6)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이란 개념은 1925년 알박스(Halbwachs)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기억에 앞선 또는 개인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집합기억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각종 집단의 정체성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집합기억은 현재의 생각이나 관심에 따라 재구성되며, 무엇보다 조작되거나 전유되기 쉽다. 이동후, 「국가주의 집합기억의 재생산」, 『언론과 사회』 제11권 2호, 성곡언론문화재단, 2003, 74면 참고  
 7)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거의 없다. 세종 최대의 업적이면서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는지, 구체적인 창제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전하지 않는다. 심지어 세종 단독 작품인지 집현전 학자들과의 공동 작업인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에 주목하며 의도적으로 세종, 즉 역사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새로운 시도<sup>8)</sup>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는 대중과 방송계<sup>9)</sup>는 물론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드라마가 끝나고 2년 남짓 지난 지금 <뿌리 깊은 나무>에 관한 논문은 무려 10편 이상<sup>10)</sup> 나와 있다. <뿌리

훈민정음 서문에 정인지가 쓴 글을 종합하여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이유)이 ‘애민(愛民)’에 있음을 짐작해볼 뿐이다. 윤희진, 「인물 한국사: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 세종대왕」, 『네이버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2897](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7&contents_id=2897).

- 8) 사실, 왕을 소환하면서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며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은 정조를 이산으로 호출한 <이산>(김이영 극본, 이병훈·김근홍 연출, MBC, 2007.09.17~2008.06.16, 77부작)에서 먼저 시도하였다.  
 9) 시청률 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뿌리 깊은 나무>의 마지막회(24부) 시청률은 전국 기준 25.4%(수도권 기준 27.3%), 평균 시청률은 전국 기준 18.1%(수도권 기준 19.6%)라고 한다. 한편 <뿌리 깊은 나무>는 대중문화평가와 드라마PD가 뽑은 ‘이 시대 최고의 드라마’로 선정된 바 있다.  
 10) <뿌리 깊은 나무>에 관한 논문을 발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중 ③, ⑩, ⑪은 분석 대상에 다른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지만, <뿌리 깊은 나무>가 주요하게 다뤄진 만큼 목록에 포함시켰다.  
 ① 안상혁·주용성, 훈민정음 창제에 나타난 세종의 이상: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와 원전 해례본과의 비교를 통해, 『인문과학』 제49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② 신원선, 「팩션사극 <뿌리 깊은 나무>의 대중화 전략」, 『인문연구』 제64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③ 오덕현, 「TV 사극의 역사재현과 저항적 의미생산: <대왕세종>과 <뿌리 깊은 나무>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④ 이종수, 「역사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미학적 요소 분석」, 『미디어, 젠더&문화』 제22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2.  
 ⑤ 고선희,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판타지성과 하위주체 발화양상」, 『국제어문』 제55집, 국제어문학회, 2012.  
 ⑥ 박상환, 「역사드라마의 포스트모더니즘 글쓰기 양상 연구: SBS 미니시리즈 <뿌리 깊은 나무>를 중심으로」, 『문예시학』 제26권, 문예시학회, 2012.  
 ⑦ 이다은, 「TV드라마의 역사적 인물 소환 전략: <뿌리 깊은 나무>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88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⑧ 전수용, 「TV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와 이정명의 원작소설: 한류 사극의 세계화 전망」, 『문학과 영상』 제13권 4호, 문학과영상학회, 2012.  
 ⑨ 김종태·정재림, 「역사서사물 <뿌리 깊은 나무>의 서사 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7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⑩ 백선기·오덕현, 「역사의 현재적 재현과 시기별 의미구성 차이: TV 역사드라마 <대왕세종>과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제34집, 한국기호학회, 2013(이 논문의 일부는 오덕현의 석사논문과 일치한다).

<깊은 나무>에 대한 논의는 드라마가 원작소설 및 역사적 사실들을 어떻게 변형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역사의 현대적 재현과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논의들은 신역사주의와 탈식민주의 등 포스트모던 역사관을 통해 <뿌리 깊은 나무>를 바라보고 역사드라마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냈다. 그 중 백전기·오덕현은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세종에 대한 영웅 해체, 치열한 신분 갈등, 역사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백성의 모습을 통해 기존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 재현을 하며, 저항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의 변화와 대중의 기호에 적응하며 장르를 형성하는 대중서사는 본질적으로 이중성을 가진다. 우선 형식적으로 성공해 온 틀을 바탕으로 안정된 관습을 고수하려는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대중서사들은 대개 표면적으로는 사회의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찬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중적이고 다원적인 대중의 관심과 기호를 포착하고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담보하기도 한다.<sup>11)</sup>

위 인용문에서 설명하듯 대중서사는 보편적으로 지배이데올로기와 저항 담론이라는 이중 담론을 생산한다. 이 드라마가 저항 담론을 내포하고 있다는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대중서사의 이중성을 고려할 때 <뿌리 깊은 나무>가 내포하고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이다.<sup>12)</sup> 본 논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① 박노현, 텔레비전 드라마와 역사적 상상력: 역사·드라마의 상호텍스트성과 아나 크로니즘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44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11) 박유희, 대중서사장르 연구 시론, 『우리어문연구』 제26권 0호, 우리어문학회, 2006, 288~289면.

12) 본 논문에서 지배이데올로기는 지배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위계질서와 우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저항 담론은 기득권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불평등한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항하며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뿌리 깊은 나무>가 결국 다다른 곳은 세종의 한글 창제와 반포이다. 역사를 소환하여 드라마로 환원할 때,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을 훨씬 극적으로 그려야 한다. 이에 “<뿌리 깊은 나무>는 훈민정음 창제를 대립적 정치세력 사이의 핏빛 과정으로 구성함으로써 훈민정음 창제가 지닌 혁명적 성격을 극적으로 강조”<sup>13)</sup>하였다. 드라마 마지막회 반포식에서 피 묻은 해례본이 휘날리는 장면이 그것을 방증한다. 이 드라마에서 한글 창제와 반포를 혁명으로 볼 때, 혁명은 ‘아래’로부터 일어나지 않고 권력의 정점이었던 왕에 의해 일어났다. 물론 소이와 강채윤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혁명의 주인공은 단연 세종이었다. 역사 발전의 과정에서 혁명은 주로 ‘아래’로부터 일어났고, 권력의 정점은 현 체제(그 자신의 권력)의 유지를 위해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경계해 온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왜 왕의 혁명을 전면화 했을까? 드라마는 혁명의 주인공이자 영웅을 백성이 아닌 왕으로 설정하고, 그 왕(집합기억의 완벽한 왕)을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캐릭터로 그린다. 불완전한 왕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 혁명을 성공함으로써 완전한 왕이 된다는 내용의 드라마는 영웅서사의 면모를 띤다. 보편적으로 영웅서사는 지배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렇다면 저항 담론과 함께 지배이데올로기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인데, 저항 담론과 지배이데올로기라는 두 가지 상반된 담론의 공존으로 인해 드라마는 어떻게 굴절되고 있는가? 이 같은 의문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이도를 소환한 방식과 이도를 중심으로 한 대결구도 양상을 통해 역사 해체 방식과 영웅서사구조의 상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것을 토대로 3장에서는 저항 담론이 형성되는 지점과 지배이데올로기

13) 조희정, 「역사적 인물 세종과 <뿌리 깊은 나무>의 성과」, 『안과 밖』 제32권 0호, 영미문학연구회, 2012, 149면. 조희정은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에 대한 사대부들의 논란과 저항이 최만리 상소로 대표되는 사태 이후에는 역사기록에서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당대 사대부들의 반대는 드라마처럼 격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를 강화하는 지점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에는 이종 담론을 통해 드라마의 의미가 어떻게 굴절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2. ‘이도’가 ‘세종’이 되기까지: 역사 해체와 영웅서사

세종을 ‘이도’로 호명함으로써 그를 낯설게 만드는 지점이야말로 <뿌리 깊은 나무>가 역사 기록을 의도적으로 해체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도를 중심으로 한 대결구도로 이어진다. 드라마는 역사 기록을 의도적으로 해체함으로써 첫째 세종을 낯설게 만들고, 둘째 인물간의 대결구도를 극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세종을 낯설게 만든 성격적 결함은 이도의 고난 극복 과정(성장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영웅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세종, 나아가 역사를 낯설게 만든 설득과 통합의 대결구도는 이도의 성공에 명분을 부여하고 영웅성을 합리화한다. 이 장에서는 <뿌리 깊은 나무>가 역사 기록을 해체하는 양상을 포스트모더니즘 역사가관이 아니라 영웅서사구조의 관점으로 풀어보려고 한다.

### 2-1. 호명된 이도와 영웅성 강화

세종은 조선의 4대 임금으로서 왕권중심체제를 확립한 강력한 왕이자 한글을 창제한 천재적인 왕이다. 이는 역사 교육에 의해 구성된 세종에 대한 대중의 집합기억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세종을 ‘이도’로 호명함으로써 이 같은 대중의 집합기억을 배반한다. 이도로 호명되는 순간 세종은 완벽하고 강력하고 천재적인 ‘대왕’이 아닌 불완전하고 나약하고 인간적인 ‘개인’이 된다. 4부 초반 이방원이 세상을 떠나고 이도는 드디어 “이방원이 없는 천하”를 맞는다. 이에 맞춰 이도 역의 배우도 송중기에서

한석규로 바뀌는데, 중년의 이도로 첫 등장한 한석규가 처음으로 한 대사가 바로 “지랄”이다. 이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랄, 젠장, 우라질 등의 욕설을 내뿜는다.<sup>14)</sup> 그뿐만이 아니다. 무휼과 궁녀들에게 격의 없는 농담도 던지고, 쉽게 흥분하는가 하면, 한낱 궁녀 앞에서 울기도 하는 등 그는 가볍고, 다혈질적이고, 나약하다. 또한 죄책감과 열패감을 지니고 고뇌하는 모습도 재현된다. 한글 창제에 가담한 집현전 학사들이 잇따라 살해되고 이방원의 예언대로 일본의 정체가 점점 드러나면서 이도는 자신이 선택한 문(文)의 정치가 과연 옳은 것인지, 아버지 이방원의 무(武)에 의한 정치가 정답이 아니었는지 고민하고 회의한다.

**이도** : 권력의 독은 안으로 감추겠다고! 오직 문으로 치세를 하겠다고! 그 네놈의 한심하고 치기 어린 생각이 이리 만든 것이야! 아무 죄도 없는 내 사람을 이리 죽인 것이야! 내가 아니라, 너다. 내가 아니라, 네놈이 죽였다!

14) ① **상궁** : (옆에서 눈치 보다 끼어들며) 전하, 이제 곧 하례가 시작됩니다.

**이도** : (천천히 돌아서 미소 띠며) 하례는... 지랄.

(중략)

**이도** : (말 자르며 빠르게) 하례, 대례, 조례, 가례! 대체 왕은 뉘누무 의식이 이리도 많은지..... 그런 것을 세자한테 이관했건만, 어찌 자꾸 하라는 젠가, 젠장!

**상궁** : 아이구, 전하 제발.....

**이도** : 그렇지 않느냐? 서책을 보고, 정사를 보는 데도 시각이 모자라는데, 우라질...(하다가는 궁녀에게는 부드럽게) 맞느냐, 우라질?

(중략)

**이도** : 과하게 많다...(고개 절레절레 젓고는) 우라지게 많다. 얼마나 내 정서를 잘 표현하느냐? 궁궐의 말에는 이런 것이 없어.

4부 권19 중(밑줄:인용자)

② **이도** : (점점 신경질적으로) 젠장할! 우라질! 개 옛 같은! (호흡이 가빠지는데)

7부 권31 중

③ **이도** : 그에 대한 과인의 답은

**모두들** : .....

**이도** :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것ियो.

-15부 권68 중

**젊은 이도** : (가까이 다가가 비아냥대듯) 허면, 아직도 늦진 않았다. (귀에 대고) 이방원의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차가운 미소로) 사죄해라.

**이도** : (거칠게 젊은 이도의 멱살을 잡으며) 이놈! (분노로 노려보며)

**젊은 이도** : (차가운 미소로) 이방원이 왜 이방원인가? 이도가 왜 이도인가? 그것밖에 되지 않으니, 이도인 게지? (하곤 깔깔 웃는다)

**이도** : 그만

-8부 씬58 중(밀줄: 인용자)<sup>15)</sup>

이도의 자아가 분열하면서 중년의 이도와 젊은 이도가 논쟁하는 위의 장면은 이도의 고민과 회의를 재현한 대표적인 장면이다. 이 같은 이도의 불완전함과 나약함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지만, 이도를 영웅으로서 바라볼 때 그것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 수 있다. 인물의 결함은 영웅서사를 강화하며, 결함에서 성장까지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영웅성은 강조된다. 완벽한 인물이 성공하는 것보다 완벽하지 않은 인물이 성공하는 것이 더욱 극적이기 때문이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불완전하고 나약한 이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도의 성공에 환호하게 된다. “처음부터 영웅성이 부여된 영웅서사는 시청자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심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반면 “처음에는 일반 대중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모습을 보이다가 훌륭한 스승이나 조력자를 통해 차츰 성장하는 영웅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영웅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면서 그 인물에 대해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이

15) 이후 대사나 장면 인용은 영상물을 바탕으로 하되, 지문 등은 작가관 대본집(김영현·박상연, 『뿌리 깊은 나무 작가관 대본집』 1~3, 북로그컴퍼니, 2012)을 참고하기로 한다. 다만 대본집과 실제 방송된 영상물의 대사가 다를 경우 영상물을 따를 것이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연구할 때 시청자와 소통한 영상물을 1차 텍스트로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러한 방식은 “<허준>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웅 성장 서사”<sup>16)</sup>의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뿌리 깊은 나무>는 기존의 영웅서사구조를 답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답습은 변형을 전제하고 있다.

이도가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에서 민족의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변화의 계기가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이 아니라는 점은 주목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도에게 변화의 의지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보잘 것 없는 백성 뜰복(훗날 강채운)과 적대자인 정기준이다. 또한 그의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백성 소이와 강채운이다. 이는 일반적인 영웅서사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여기에서는 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백성에게 조력자 역할을 부여한 것은 서사 전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 유일한 여성 주인공인 소이와 이도 사이에는 애정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때문에 소이와 이도와 강채운 사이에 삼각구도도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드라마에서 소이의 역할이 조력자로서 더욱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허준>에서 예진 아씨가 조력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sup>17)</sup> 멜로서사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소이와 이도 사이에 멜로서사를 삽입하지 않음으로써 드라마는 오롯이 이도의 고난 극복 과정에 집중한다. 멜로서사를 부각시키지 않은 것은 영웅서사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드라마에 멜로서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강채운과 소이 사이에 멜로서사가 형성되지만 크게 부각되지 않을 뿐이다.<sup>18)</sup> 무엇보다 강채운과 소이의 멜로

16) 배선애, TV 드라마 <주몽>에 나타난 영웅 신화의 형상화 방법, 『한국극예술연구』 제25집, 한국극예술학회, 2007, 304~305면.

17) <허준>(최완규 극본, 이병훈 연출, 이은성 원작, MBC, 1999.11.22~2000.06.27, 64부작)에서 허준과 예진 아씨의 멜로서사는 허준의 성장서사에 비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허준을 향한 예진 아씨의 애뜻한 연정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허준←예진 아씨←유도지의 삼각구도도 나타나는 등 멜로서사가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

서사는 이도의 영웅서사에 수렴된다. 한글 창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이가 강채윤과 함께 떠남으로써 (이도 스스로 보내준 것이라 할지라도) 이도는 고비를 맞게 되고, 소이로 인해 강채윤이 이도의 조력자가 됨으로써 (강채윤이 돌아선 것이 오로지 소이 때문만은 아닐지라도) 이도는 힘을 얻게 된다. 한편, 강채윤과 함께 떠났던 소이가 다시 궁으로 돌아온 이유도 이도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다. 대의를 이루고 싶다는 자기의지가 그녀를 돌아오게 한 것이다. 백성 나아가 여성 백성에게 자기의지, 즉 주체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뿌리 깊은 나무>는 전복적이다. 한편 소이가 다시 궁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주체적인 개인의식이 아니라 봉건시대의 선공후사(先公後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전복적으로 읽혀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선 추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다시 이 드라마가 멜로서사를 약화시키고 소이와 강채윤을 이도의 조력자로 강조한 것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자. 이 드라마에서 백성인 소이와 강채윤이 이도의 조력자로 위치하는 것은 이도를 낮설게 만드는 하나의 전략이다. 그들의 관계가 수직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도는 왕으로서 권위와 위엄을 내세우지 않고 노비 출신의 궁녀 소이와 말단 무관 강채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강채윤에게는 심지어 자신이 만든 글자의 판관이 되어 달라 청한다. 신분 고하를 막론한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이도는 신분제도가 엄격한 조선시대의 왕의 모습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드라마는 이와 같이 백성과 소통하는 이도를 통해 그가 한글을 만드는 것이 진정 백성을 위한 것임을, 또한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백성을 고려하였음을 강조한다. 이로써 이도의 업적, 즉 영웅성은 합리화 된다.

18) 소이와 강채윤이 서로의 존재(소이가 담이이고 강채윤이 풀복이라는 사실)를 알게 되고 극적으로 재회하는 부분에서 멜로서사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후 이도는 둘이 함께 살라고 보내주지만 소이는 대의를 이루고자 이도가 있는 궁으로 돌아오고, 이로써 멜로서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 2-2. 역사 해체와 대결구도 강화

<뿌리 깊은 나무>의 대결구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도를 중심으로 이도와 이방원→이도와 강채윤·정기준→이도와 정기준 등으로 미끄러진다. 드라마 초반부의 극적 긴장감이 이도와 이방원의 양자대결에서 비롯되었다면, 드라마 중반부의 극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은 정기준, 이도, 강채윤의 삼자대결이다. 그리고 강채윤이 이도의 적대자에서 조력자로 자리바꿈하면서 중반(15부) 이후부터는 이도와 정기준의 양자대결이 서사의 중심이 된다. 강채윤의 경우 조력자로서 앞 장에서 논하였기에 이 장에서는 이방원과 정기준과의 대결구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드라마 초반 젊은 이도는 강력한 힘을 지닌 아버지 이방원 때문에 아무런 의견도 내세울 수 없는 허울뿐인 왕이었다. 이방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도는 외척들이 모두 죽어가고 자신의 장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가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 이도가 장인인 심온 대감덕 어린 노비를 살리기 위해 이방원에게 처음으로 맞선다. 이방원이 수하들에게 풀복의 목을 가져오라고 명하자, 이도는 자신의 칼을 뽑아 이방원 앞에 던지며 풀복이를 죽이려거든 “패역한 역당의 노비를 비호했고, 삼봉의 이름을 입에 올려 아바마마의 권력에 도전”한 자신의 목도 베라고 한다. 분노한 이방원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자 이도는 무릎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다면 넌 즉시 임금을 시해한 자의 목을 쳐야 할 것”이라고 명한다. 결국 이방원이 칼을 거두고 자리를 떠나며 둘의 첫 대결은 일단락된다.<sup>19)</sup> 처음으로 이방원에게 맞선 이도는 “나의 조선은 다를 것”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이냐”라는 이방원의 질문에 답을

19) 이방원이 떠나기 전 이도에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남긴다. 이 발화에서 목적이든 의도적으로 생략됨으로써 발화의 의미는 모호해진다. 생략된 목적어는 ‘나를’과 ‘너를’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이방원의 발화는 ‘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협박의 외연 속에 ‘네(의 결정)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하지는 못한다. 이후 이도는 이방원이 보낸 빈 찬합을 통해 마방진의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풀어내고 아버지 이방원의 조선과 다른 자신의 조선에 대한 답을 찾아낸다. 마방진 아홉 개의 틀 속에 오직 한일자(一)가 적힌 것 하나면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이방원은 왕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진 절대 군주였다. 아버지 이방원이 무(武)를 통해 왕권 중심의 정치를 한 것과 달리 이도는 문(文)을 통해 왕과 사대부와 백성 모두가 함께 하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이방원이란 첫 번째 장애<sup>20)</sup>를 극복한 이후에도 이도가 그만의 조선을 이뤄가는 길은 여전히 순탄치 않았다. 드라마 초반 정기준은 백정 가리온으로 위장하여 등장한다. 가리온이 일본의 3대 본원 정기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리온이라는 이도의 조력자는 정기준이라는 적대자로 전환한다. 이는 강채윤이 세종의 적대자에서 조력자로 변모한 것과 대조적이다. 사실, 애초에 가리온은 일본의 본원으로서 보이지 않는 이도의 적대자였지만 시청자들은 그 사실을 10부에 가서 도담택이 심종수에게 그 사실을 밝힘으로써 알게 된다. 이후 이도와 정기준(일본)의 대결구도는 본격화되고, 정릉암에서 펼쳐진 토론 장면에서 절정에 다다른다.<sup>21)</sup> 이도가 한글을 만든 것은 백성에 대한 사랑인가 혹은 백성에 대한 책임 회피인가, 그리고 궁극에 가서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놓고 두 인물은 팽팽하게 논리 대결을 펼친다. 그들의 쟁점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도는 백성이 사대부의 욕망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백성에게 힘과 권력을 나누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고 한다. 정기준은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백성 또한 욕망이 생기게 될 것이며 “그 욕망들이 모두 한꺼번에 풀어

지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라 한다. 또한 정기준은 정치의 본질은 책임인데 이도는 한글을 통해 백성과 “권력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려는 것”이며, 이는 백성을 귀찮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뿌리 깊은 나무>의 대결은 주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형상화된다. 대결 수단이 무(武)가 아닌 문(文)이라는 것, 대결 무대가 전장(戰場)이 아닌 토론장이라는 것은 이 드라마를 특성화 한다. 드라마 전개에서 토론이란 서사 전개를 정지시켜 자칫 시청자를 지루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쟁과 토론 장면(때때로 그것은 10~20분이나 지속된다)을 통해 극적 긴장감이 조성된다는 것은 이 드라마의 매력이다. “칼이 아닌 말로써 설득하고, 모두의 진심을 얻어내어, 모두를 오직 품”는 조선이 바로 이도의 조선이라는 것을 드라마는 말(논리)의 대결구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신하와 백성이 임금에게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성을 배제하고 말(논리)의 대결구도를 펼친 것은 이도의 성공이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설득과 통합을 통해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로써 이도의 성공에 당위성을 실어주기 위해서이다.

한편 역사성을 배제하고 역사 기록을 왜곡하는 것은 대결구도를 강화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역사 기록<sup>22)</sup>에 따르면 세종과 태종은 대립하지 않았다. 태종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면 친지건 인척이건 혈육이건 가리지 않고 처단하며 악업을 담당했던 것은 다음 대의 왕이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세종은 그런 태종에게 항상 효의 도리를 다하며 그가 결정한 사안들을 끝까지 존중하려 노력하였다고 한다. 드라마에서 정기준은 정도전의 동생 정도광의 아들, 즉 정도전의 조카로 설정되어 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정도전에게 도준과 도복이란 이름

20) 이방원을 비롯해 정기준과 강채윤 등은 이도의 적대자로서 그가 극복해야 할 장애이면서 동시에 이도의 고뇌와 갈등을 대변하는 또 다른 이도, 즉 이도의 트라우마로 해석될 수 있다.

21) 19부 11~12회에 이르기까지 이도와 정기준의 논리 대결은 무려 20분 동안 지속된다. 물론 다른 장면이 중간중간 삽입되었지만 대부분 이도와 정기준의 논리 대결로 이루어진다. 이는 김영현과 박상연 작가의 전작인 <선덕여왕>에서 미실과 덕만의 논리 대결이 6분 동안 지속된 것보다도 3배 이상 긴 것이다.

22) 이후 역사 기록에 대한 내용은 박봉규, 『조선 최고의 사상범』, 인카운터, 2011, 40~41, 59, 66, 88면을 참고하였다.

의 동생들은 있었지만 도광이란 이름의 동생은 없었고, 정기준이란 조카도 없었다. 정기준이 작가가 창조한 허구인물이라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문제는 정기준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정도전을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정도전은 진보적 사상가였고 민본주의자였다. 즉 역사 속 정도전은 세종과 같은 지점에 놓여 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정도전은 의도적으로 왜곡된다. 정기준과 밀본 세력은 정도전의 정치철학을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혁명에 가까운 뜻을 품고 이도에게 맞선다. 이때 정기준은 사대주의 전통에 반하는 이도의 진보적 개혁을 견제하는 수구 세력으로 그려지면서 정도전의 사상은 보수적으로 왜곡된다. 게다가 왕권을 견제한다는 명분 뒤에 사대부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망이 내포되어 있어 민본주의에도 어긋난다. 이 같은 세종과 태종의 관계에 대한 왜곡 및 정도전에 대한 왜곡은 이방원과 정기준을 이도의 반대편에 위치시키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전략인 것이다.

드라마는 역사 기록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면서 인물의 대결구도를 팽팽하게 만들고, 이도뿐만 아니라 상대 인물에게도 논리를 부여함으로써 선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sup>23)</sup> 그런데 힘의 균형은 드라마 후반부로 갈수록 흔들린다.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정기준(밀본)의 명분이 공감받을 수 없게 되면서 팽팽했던 대결구도는 약화되는 것이다. 특히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려는 이도의 목적과 명분이 애민(愛民)에 있다면, 한글 창제와 반포를 막으려는 정기준의 목적과 명분은 애민이 아니라 기득권 유지에 있는 듯 그려진다. 정기준의 논리가 전체 맥락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그의 행동에 충분한 당위성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3) 역사드라마는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결합된 장르이다. 역사적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고, 따라서 역사드라마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 정해져 있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허구이다. 과정은 갈등이며, 그 갈등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선악이 뚜렷한 양자구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궁궐을 배경으로 하는 기왕의 역사드라마(소위 궁중사극이라 일컬어지는 것)는 대부분 이와 같은 문법을 따랐다. 궁궐을 배경으로 정치와 권력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뿌리 깊은 나무>는 왕과 기득권 사대부 간의 선악이 뚜렷한 양자구도를 차용하지 않았다.

이는 세종의 한글 창제와 반포라는 거대역사를 향한 영웅서사의 운명에서 비롯된다. 역사와 영웅서사구조는 이미 이도의 승리를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드라마 막바지에 가서 부상을 당해 죽어가는 정기준이 글자방으로 이도를 찾아와 못 다한 둘의 논리 대결을 마무리한다. 이도는 앞의 논리 대결에서 정기준이 자신에게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을 상기시키며 반박한다. “그땐 정말 그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다. 정기준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데, 그 과정은 앞의 팽팽했던 논쟁들이 무색할 만큼 느슨하다.

### 3. 저항 담론 너머의 지배이데올로기

드라마는 역사를 해체하면서 나약하고 인간적인 ‘이도’를 호출해 이방원, 정기준과 팽팽한 대결구도를 형성하였고, 이는 영웅서사를 강화하였음을 앞 장에서 확인하였다. 역사 기록의 해체를 포스트모더니즘 역사관으로 바라볼 때 <뿌리 깊은 나무>는 기왕의 역사드라마와 구별되는 새로움을 지녔지만, 영웅서사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바라볼 때 기왕의 역사드라마를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드라마는 저항 담론 너머로 여전히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뿌리 깊은 나무>에서 저항 담론이 생산되는 지점과 지배이데올로기가 생산되는 지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3-1. 대중 욕망과 저항 담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세종은 과학, 의학, 농학 등의 기술을 변혁하고 사회체도를 정비하고 두만강과 압록강 이남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등 광범

위한 분야에서 주요한 업적을 남겼다. 그런데 <뿌리 깊은 나무>는 한글 창제라는 업적을 선택하였고, 그 중에서도 한글 창제 이유에 주목한다.<sup>24)</sup> 즉 드라마는 한글을 통해 백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로써 백성과 소통하고자 했던 세종의 한글 창제 이유를 담고 있다. 이는 소통이 부재한 지금-여기를 살고 있는 대중들의 소통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며 드라마가 지금-여기의 대중과 소통하는 전략이다.

또한 드라마는 위대한 왕으로서의 세종 대신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이도를 호출함으로써 세종을 신성시하고 그의 업적을 칭송하는 대신 그의 고뇌와 갈등을 그려내고 있다. 이 또한 지금-여기의 대중과 소통하는 전략이다.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세종은 시청자에게 낯설지만,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이도는 시청자에게 익숙하다. 전자는 세종에 대한 집합 기억에 위배되기 때문이며, 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나약한 개인으로서의 이도는 시청자 자신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기왕의 역사드라마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기왕의 역사드라마가 왕에 대한 동경을 형성하는 반면, 이 드라마는 공감을 형성한다. 허나 중요한 것은 그 공감이 동일시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도가 아무리 불완전한 개인으로 그려질 지라도 명백히 그는 민중이 아닌 왕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도는 동일시의 대상이 아닌 욕망의 대상이다. 역사드라마에 내재되어 있는 대중 욕망과 판타지는 “현재의 시대적 열등의식을 반영”<sup>25)</sup>한다는 측면에서 이도는 진정한 영웅이 부재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영웅에 대한 지금-여기 대중들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다.

“영웅은 역사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로, 여기에 구현되는 영

24) 이는 <뿌리 깊은 나무>보다 앞서 세종을 호출했던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대왕세종>(윤선주·김태희 극본, 김성근·김원석 연출, SBS, 2008.01.05.~11.16, 86부작)이 세종의 일대기를 다룬 것과 비교된다.

25) 양근애, 『TV드라마 <대장금>에 나타난 ‘가능성으로서의 역사’ 구현 방식』, 『한국극예술연구』 제28집, 한국극예술학회 편, 2008, 339면.

웅은 대중들의 욕망에 대한 대리자이자 그것의 집약체로서 기능하는데, 특정 시기 드라마가 형상화해내는 영웅의 모습과 그것을 환영하는 시청자 간의 소통은 당대 대중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sup>26)</sup> 그렇다면 2011년 말 세종을 호출한 대중의 욕망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나무>에서 형상화된 이도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보아야 한다. 특히 백성이든 신하든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설득과 통합을 하고자 하는 이도의 ‘열린’ 태도는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지배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위계질서와 우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지배이데올로기를 위반한다. 그런데 드라마는 아이러니하게도 봉건체제의, 즉 위계질서와 불평등이 강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뿌리 깊은 나무> 15부가 방영되었던 2011년 11월 23일, 경찰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아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뿌리 깊은 나무> 15부에서 한글 반포를 막으려는 일본이 광평대군을 납치하고 협박하자 이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혹시 말이오, 이 중에 일본이 있다면 똑똑히 전하시오. (사이) 겨우, 폭력이라니!” 그리고 그 다음날 방영되었던 16부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조정 대신들이 입궁을 거부하고 유럽들이 시위를 하자 이도는 무력 대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그들을 하나하나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백성이란 오직 보살피고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라는 정기준의 말에 이도는 백성은 결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이라고 주장한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지금-여기의 시대적 열등의식과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되지 못한 지금-여기 대중들의 결핍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진정한 역사의 주인에 대한 욕망을 발생시켰다. 그 욕망은 설득과 통합의 정치를 펼치는 지도자(영웅)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지며, 이상적인 지도자(영웅)에 대한 욕망은 이도에게 투영되었다. 이는 기득권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불평

26) 배선애, 앞의 글, 292면.

등한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저항 담론을 형성하는 주요 지점이다.

앞 장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소이를 통해 백성의 주체성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 저항적 담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역사 기록에 없는 허구적 여성 캐릭터인 소이를 통해 어떻게 저항적 담론이 생산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기존의 역사드라마에서 여성 캐릭터는 남성 캐릭터에 의존하거나 남성 캐릭터가 대의를 이루는 데 장애가 되는, 소극적이고 문제적인 캐릭터로 그려졌다. 영웅적 면모를 지닌 여성 캐릭터일 경우에도 스스로 성공하지 못하고 남성 캐릭터의 도움을 받았다. 그나마 적극적으로 향상화될 경우 그 적극성의 추동 요인은 바로 사랑이었다. 그런데 소이는 다르다. 소이는 사랑이 아닌 대의를 선택했고, 그 선택을 함에 있어 외부의 어떤 강요, 즉 타자성은 없었다. 오롯이 백성 소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게다가 소이는 한 번 본 그림이나 글씨를 다 외우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스스로 ‘해례’가 됨으로써 한글 창제라는 대의를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백성, 나아가 여성 백성, 더 나아가 ‘능력 있는’ 여성 백성의 주체성은 여성의 유순함, 즉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을 따르기를 강요하는 삼중지도의 전통적인 지배이데올로기를 전복한다.

소이가 주체성을 통해 저항 담론을 생산한다면 강채윤이 저항 담론을 생산하는 요소는 바로 그의 저항성이다. 강채윤은 15부에서 이도와 소이가 이루고자 하는 대의에 합류하는데,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이도에게 저항하고 이도의 대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략적으로 드라마의 3분의 2 정도까지 그는 저항적 인물이다. 그 저항성은 무엇보다 끊임없는 의문에서 비롯되었고 그 의문이야말로 전복적이고 저항적이다. 이도가 자신이 만든 글자의 관관이 되어 달라 요구하자, 강채윤은 다음과 같이 이도를 비난한다.

“백성이 글자를 배울 시간이 어딴습니까? 뻔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낼 거 맞추는 데도 모자랍니다. 또 배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글자가 쌀을 만

들어 줘니까, 옷을 만들어 줘니까? 아님 양반을 만들어 줘니까? 물론 양반은 글자를 알죠. 하지만 글자가 양반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백성은 글자를 몰라 억울하게 죽지만, 백성은 글자를 안다는 이유로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천것은 맞아서도 죽지만 때려서도 죽는 거라구요.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힘이 없어 억울해지는 거지 글자를 몰라 억울해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마치 글자를 알면 우리가 억울한 일 안 당할 것처럼 속이지 말란 말입니다.”

-14부 권3 중 강채윤의 대사 편집(밑줄: 인용자)

강채윤은 글자를 아는 것이 곧 권력(힘)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그 글자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대부나 양반이지 절대 백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글자를 안다고 해도 양반이 아니면 과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조선시대 신분제도를 생각할 때 강채윤의 반론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런데 과연 글자를 알고 있는 지금-여기의 대중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있을까. 강채윤의 의문은 신분제도가 사라진 지금-여기로 전이되며, 그 순간 드라마는 저항 담론을 생성한다.

“난 글자에 관심을 끊었다. 제도를 만들고 씨앗을 뿌렸다. 이제 글자는 세상의 것이고, 저들의 것이다. 그 글자가 어떤 세상을 만들지도, 저들의 책임이다.”

드라마 막바지에 나온 이도의 내레이션이다. 위정자는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세상에 내놓을 뿐이며 정작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는 것은 백성이어야 한다는 이도의 말은 이상적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의 주인은 지배층의 ‘몇몇’인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여기의 현실 또한 봉건주의 조선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 <뿌리 깊은 나무>는 역사를 해체하며

‘불가능으로서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불가능했고 지금-여기에서도 실현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가능했으면 하는 대중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역사를 해체함으로써 지금-여기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은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해 저항적이다. 그런데 저항은 여기까지다. 글자가 어떤 세상을 만들었는지는 드라마에서 그려지지 않는다. 드라마 속 이도는 자신이 만든 글자가 기존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바랐지만, 이도의 바람대로 백성이 주인인 그런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드라마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항적 담론은 다시 형성된다.

### 3-2. 영웅서사와 역사, 그리고 지배이데올로기

앞 장에서 백성 소이의 주체성과 백성 강채윤의 저항성이 저항 담론을 생산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소이와 강채윤을 통해 지배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기도 한다. “처음으로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소이는 그 일, 즉 한글을 창제하는 일을 ‘대의’라고 명명했다. 소이의 저항성에 대한 전복은 대의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강채윤처럼 대의에 대해 의심하고 의문을 갖지 않고 처음부터 그것이 백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맹신했다. 대의를 위한 자기희생이 전경화 되면서 그녀는 숭고함을 획득한다. 하지만 그 “자기희생이 사적 영역과 공공 영역을 자유롭게 유영하면서 스스로의 주체성을 구성해 내는 근대적이면서 주체적인 개인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출원한 것이 아니라, 봉건시대의 선공후사적 덕목을 강조한 데서 출원한 것”<sup>27)</sup>이라는 점은 문제적이다. 이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 하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이도의 대의를 항상 의심하고 이도에게 저항하던 강채윤이 결국 이도의

27) 차원현, 『정전과 동원』, 한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편, 『1960~70년대 한국문학과 지배-저항 이념의 헤게모니』, 도서출판 역락, 2007, 319면.

대의에 합류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소이라는 점 또한 주체성으로 얻은 그녀의 저항성을 전복한다. “소이는 ‘대의’를 위해 몸 바쳐 종사하고자 하는 인물로서 지배층의 ‘대의’에 의혹을 제기하는 채윤과 같은 자들을 설득”함으로써 “지식인 지배층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데 복무하는 여성”<sup>28)</sup>으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채윤이 이도의 대의에 합류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소이라는 점은 강채윤의 저항성마저 전복한다. 강채윤이 대의에 합류하게 된 것은 강채윤의 의지이면서도 소이의 의지(욕망)가 작용한 결과다. 사실 후자가 더욱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강채윤은 “윗분들의 일이 우리를 죽이는 일인지 살리는 일인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겠”다며 결코 순응하지 않을 것처럼 하나, 결국 목숨을 바쳐 이도의 조력자가 된다. 그렇게 저항을 포기하는 것이 주체적인 선택보다 타자성에 의한 것이라는 점, 그것이 강채윤의 저항성을 전복하는 지점이다.

이쯤에서 19부 정륜암에서 펼쳐진 이도와 정기준의 논쟁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도는 사대부의 욕망을 지적하며 그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백성에게 부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백성에게 힘과 권력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대부는 그들의 능력만큼 욕망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 기득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세습하고 싶어 하게 될 것이야. (중략) 사대부가 그리되지 않도록 누가 그 욕망을 견제할 수 있겠는가? 임금 은 견제당해야 하는 존재이기에 한계가 있다.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게 하려 한다. 백성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나누게 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균형, 새로운 조화다! 글자는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

-19부 씬3 중 이도의 대사 편집(밑줄: 인용자)

28) 고선희, 앞의 글, 106~107면. 고선희는 소이가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로 재현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지식인 지배층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데 복무하는 여성 캐릭터로 재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이라는 여성의 재현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선희는 주체성에 방점을 찍었다.

사대부 즉 기득권의 욕망을 견제하기 위해 백성에게 힘과 권력을 나누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균형, 새로운 조화”는 지금-여기 대중의 이상이고 욕망이다. 이도를 통해 드라마는 대중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정기준은 “거대하고도 무서운 군중의 욕망”들이 “모두 한꺼번에 풀어지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라며 백성의 욕망을 지적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 백성의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는 정기준의 주장은 지금-여기 대중의 욕망을 위반한다.

**정기준** : 모르겠는가! 그들의 욕망은 결국 정치를 향하게 되어 있어! 국가의 정책에 관여하려 할 테고, 나아가서! ……그들의 지도자를 스스로 선출하려 들 것이다.

**이도** : 그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뽑는다? 그것이 지옥인가?

**정기준** : (버럭) 이도! 동서고금에 그런 무책임한 제도가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치는 책임이다! 유사 이래 정치의 본질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정치는 오직 책임이야! 헌데 그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뽑는다? 히면 그 지도자가 실정을 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지? 그 지도자를 뽑은 백성을 모두 죽여야 하나?

**이도** : 어찌 너에겐 백성에 대한 신뢰가 이리도 없단 말인가? 어찌 그리된 것인가? 정기준….

**정기준** : 내가 백성으로 살았으니까… 저들에겐 희망이 없다. 역사를 발전시키는 건, 저 무지몽매하고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군중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몇몇이다.

-19부 썬5 중(밑줄: 인용자)

백성들이 뽑은 지도자가 실정을 한다면 그 지도자를 뽑은 백성을 모두 죽여야 하나는 정기준의 물음이 흥미롭다. 백성에겐 희망이 없으며, 역사를 발전시키는 건 ‘책임을 질 수 있는’ 몇몇 지도자라는 말도 그렇다. 이 같은 정기준의 주장은 이도를 넘어 지금-여기 대중의 욕망과 희망을 무너

뜨린다. 정기준이 말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도자들이 과연 몇이나 존재하는 지도 의문스럽다. 무엇보다, 정륜암 논쟁 장면에서 국한될지라도 이도와 정기준의 팽팽했던 대결구도가 점점 균형을 잃고 정기준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것은 문제적이다. 이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욕망보다 역사를 발전시키는 건 몇몇 지도자라는 이데올로기가 부상한다. 하지만 둘의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드라마는 다시 이도를 통해 역사를 발전시키는 건, 즉 역사의 주인은 몇몇의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이라 말한다.

“그들(백성: 인용자)은 결국 그들의 지혜로, 길을 모색해갈 것이다. 그리고 매번 싸우고 또 싸워나갈 것이다. 어떤 때 이기고, 어떤 때 속기도 하고 지기도 하겠지. 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게 역사니까. 지더라도 괜찮다. 수많은 왕조와 지배자가 명멸했으나, 이 백성은 수만 년 동안 변치 않고 이 땅에 살아 있으니까. 또, 싸우면 되니까.”

-24부 썬49 중 이도의 대사(밑줄: 인용자)

드라마는 수많은 왕조와 지배자가 명멸했으나, 백성은 변치 않고 이 땅에 살아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백성의 행동을 추구하고 백성의 책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상적인 지도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해 싸우는 백성이라는 것이다. 이도 곁에 백성 소이와 강채윤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에 살아남은 것은 백성 소이와 강채윤이 아니라 왕 이도<sup>29)</sup>이다. 이도가 아무리 불완전한 개인으로 그려질 지라도 명백히 그는 백성이 아닌 왕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음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도를 불완전한 개인으로 그리면서도 그의 가족을 배제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그려질 때 가족시는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이 죽고 이

29) 마지막에 가서 강채윤, 소이, 무휼, 정기준, 도담택, 개파이, 윤평 등이 죽음을 맞는다. 한편 심종수와 한가 늬(한명회)은 살아남는데, 이에 대한 해석도 요구된다.

도의 조선이 시작되면서는 광평을 제외하고는 이도의 가족은 일절 등장하지 않는다. 초반에 잠깐 등장했던 소현왕후조차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sup>30)</sup> “광평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로 존재하는 짧은 시간을 제외하면 이도는 언제나 궁녀와 대신, 백성과 관계 맺는 ‘왕’으로서만 존재한다.”<sup>31)</sup> 강채윤에서 세종으로 주인공을 전환한 <뿌리 깊은 나무>는 결국 왕의 이야기이다. 영웅서사의 논리에 따라 주인공인 왕(영웅)은 결국 승리하고 살아남는다. 반면 ‘책임을 지는’ 백성에게 남는 것은 희생과 죽음이다.<sup>32)</sup> 드라마는 “대체 왜 우리가 힘 있는 자들의 싸움에 끼어들어야 하느냐”라고 묻는 강채윤과 같은 백성에게 행동을 촉구하고 책임을 상기시키면서도 결국 백성의 희생과 죽음을 선택한다. 영웅서사의 정해진 결론은 “개인은 공공의 우선성이라는 지상명령에 언제든지 겸허하게 불려 나와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존립 목적에 걸맞게 가공되어야 할 원재료로서, 동원가능한 예비 전사로서만 그 의의를 인정받는다.”<sup>33)</sup>는 지배이데올로기를 생산한다.

이 드라마의 결론은 또 다른 면에서 문제적이다. 역사를 초월한 듯한 <뿌리 깊은 나무>는 마지막에 가서 일본의 지략가 역할을 한 ‘한가 놈’

30) 이 드라마에는 한글 창제와 관련된 궁녀들만 등장할 뿐 사극에서 중요한 여성 캐릭터인 중전이나 대비 등 내명부가 등장하지 않는다. 초반에 아버지 심온 대감을 살려달라고 이도에게 간청하는, 그리고 아버지 집 노비 소이를 살리는 소현왕후가 잠깐 등장할 뿐이다. 소이를 궁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한 뒤 그녀 역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31) 이다운, TV드라마의 역사적 인물 소환 전략 <뿌리 깊은 나무>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88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108면.

32) 한편, 왕자인 광평대군까지도 아버지 이도의 대업을 위해 죽음을 맞는데, 이때 광평대군의 죽음 또한 역사 기록을 위반한다. 드라마에서 광평대군은 한글로 <석보상절>의 인쇄를 시도하다 정기준 일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역사 기록에 의하면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 여(璣)는 20세가 되던 해인 1444년에 천연두로 죽는다. 광평대군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수용, 앞의 글, 815면의 각주2를 참고하였다. 광평대군은 비록 백성이 아닌 왕족이었지만, 그 역시 왕이 될 세자가 아니라 왕이 되지 못하는 대군이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33) 차원현, 앞의 글, 318면.

이 한명회임이 밝혀짐으로써 다시 역사로 돌아온다. 시청자들은 한명회가 심종수로부터 부여받은 과제, 즉 수양대군의 마음을 사로잡아 역사의 전면에서 재상총재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과제를 결국 이행할 것이라는 드라마 밖의 사실(역사)을 알고 있다. 비록 드라마 안에서 세종의 개혁이 성공했지만, 드라마 이후 또 다시 난세(亂世)가 펼쳐질 것임을 예견한다. 이에 시청자들은 과연 역사 혹은 역사드라마에 해피엔딩은 존재하는지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된다. 역사를 해체하고 지금·여기 대중의 욕망을 투영하고는 굳이 다시 역사로 되돌아가 선택한 열린 결말은, 해피엔딩은 결국 실현될 수 없다는 허탈감을 준다. 이로써 대중 욕망은 허무하게 소비된다. 대중 욕망을 투영하고 그것을 다시 소비하면서 드라마는 저항 담론 너머로 지배이데올로기를 생산하게 된다.

#### 4. 나오며

대중서사는 보편적으로 이중적 담론을 생산한다. 지배이데올로기와 저항 담론이 그것이다. 그런데 <뿌리 깊은 나무>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후자에 주목하고 전자에 대해선 간과해 버린다. 본고는 담론의 이중성이라는 대중서사의 보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 깊은 나무>가 저항 담론을 형성하는 지점과 지배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지점을 함께 분석하고, 이중 담론을 통해 드라마의 의미가 어떻게 굴절되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뿌리 깊은 나무>는 역사 기록의 빈 칸에 주목하면서 의도적으로 역사를 해체하였다. 역사의 해체는 세종을 ‘이도’로 소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이도를 소환한 방식과 이도를 중심으로 한 대결구도를 살펴본 결과, 위대한 왕으로서의 세종 대신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이도를 소

환하고, 역사 기록을 왜곡하면서 이방원과 정기준을 이도의 반대편에 위치시켰다. 이로써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하기까지의 이도의 고난 극복 과정과 이도와 적대자의 대결구도를 극대화하며 영웅서사를 강화하였다. 한편 고난 극복 과정에서 설득과 통합을 강조하고, 주요 조력자로서 백성인 소이와 강채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주목되었다. 이는 지금-여기 대중의 욕망을 반영한 것으로 이 드라마가 기존 역사드라마와 변별되는 지점이었다. 이 지점이 부각되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저항 담론을 생산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드라마는 영웅 서사가 강화되는 만큼 저항 담론 너머로 지배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저항 담론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뿌리 깊은 나무>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지배이데올로기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존 역사드라마의 성향을 반복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나무>는 지금-여기 권력의 아래에 있는 대중의 욕망과 역사 속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의 욕망이 만난 판타지라는 점에서 새로웠다. 백성과 소통하고자 하는 이도의 욕망은 지도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지금-여기 대중의 욕망과 상통한다. 다만 드라마는 역사 혹은 영웅서사라는 한계에 부딪치면서(권력의 아래와 권력의 정점이라는 상반되는 지점이 충돌하면서) 완벽한 판타지가 되지 못하고 대중의 욕망은 미끄러졌다.

한편, <뿌리 깊은 나무>의 실험적인 연출과 감각적인 영상기법, 그리고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는 구성상의 빈틈을 채우며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였다. 영상이나 연기 측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임을 고백한다. 이는 텔레비전 드라마 연구자로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김영현·박상연 극본, 장태유·신경수 연출, <뿌리 깊은 나무> 24부, SBS, 2011.10.05.~2011.12.22.  
 김영현·박상연, 《뿌리 깊은 나무 작가관 대본집》 1~3, 북로그컴퍼니, 2012.  
 이정명, 《뿌리 깊은 나무》 1·2권, 밀리언하우스, 2006.

### 2. 단행본

- 이영미, 『한국인의 자화상, 드라마』, 생각의 나무, 2008.  
 최문규 외,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3.  
 테사 모리스-스즈키, 김경원 옮김, 『우리 안의 과거』, 휴머니스트, 2006.  
 한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편, 『1960~70년대 한국문학과 지배-저항 이념의 체계 모니』, 역락, 2007.

### 3. 논문

- 고선희,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판타지성과 하위주체 발화양상」, 『국제어문』 제55집, 국제어문학회, 2012.  
 김기봉, 「역사극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신역사주의적 효과」, 『드라마연구』 제34호, 한국드라마학회, 2011.  
 김종태·정재림, 「역사서사물 <뿌리 깊은 나무>의 서사 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7권 1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김태연, 「드라마 <대장금>에 나타난 영웅서사의 현대적 변용」, 『어문연구』 제53집, 어문연구학회, 2007.  
 박노현, 「히스토리·미디어·스토리」, 『한국문학연구』 제4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2.  
 ———, 「텔레비전 드라마와 역사적 상상력」, 『한국문학연구』 제44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박명진, 「추리(推理)와 역사(歷史)의 변증법」, 『한국극예술연구』 제3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2.  
 박상완, 「역사드라마의 포스트모더니즘 글쓰기 양상 연구」, 『문예시학』 제26집,

- 문예시학회, 2012.
- 박유희, 「대중서사장르 연구 시론」, 『우리어문연구』 제26권 0호, 우리어문학회, 2006.
- 배선애, 「TV 드라마 <주몽>에 나타난 영웅 신화의 형상화 방법」, 『한국극예술 연구』 제25집, 한국극예술학회, 2007.
- 백선기 · 오덕현, 「역사의 현재적 재현과 시기별 의미구성 차이」, 『기호학연구』 제34집, 한국기호학회, 2013.
- 백소연, 「전쟁 기억의 균열과 그 재현」, 『한국극예술연구』 제37집, 한국극예술학회, 2012.
- 신원선, 「팩션사극 <뿌리 깊은 나무>의 대중화 전략」, 『인문연구』 제64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 안상혁 · 주용성, 「훈민정음 창제에 나타난 세종의 이상: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와 원전 해례본과의 비교를 통해」, 『인문과학』 제49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 양근애, 「TV드라마 <대장금>에 나타난 ‘가능성으로서의 역사’ 구현 방식」, 『한국극예술연구』 제28집, 한국극예술학회 편, 2008.
- 오덕현, 「TV 사극의 역사재현과 저항적 의미생산」,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윤석진, 「HDTV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의 서사기법 고찰」, 『한국문학연구』 제3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9.
- \_\_\_\_\_,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장르 변화 양상 고찰1」, 『한국극 예술연구』 제38집, 한국극예술학회, 2012.
- \_\_\_\_\_,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장르 변화 양상 고찰2」, 『비평문학』 제48집, 한국비평문학회, 2013.
- 윤진현, 「이순신과 영웅의 쇠신-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14호, 대중서사학회, 2005.
- 이다운, 「TV드라마의 역사적 인물 소환 전략」, 『인문학연구』 제88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 이동후, 「국가주의 집합기억의 재생산」, 『언론과 사회』 11권 2호, 성곡언론문화재단, 2003.
- 이승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의적(義賊) 서사화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40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 이영미, 「TV문화비평·사극의 시대」, 『황해문화』 제74호, 새얼문화재단, 2012.
- 이은애, 「역사드라마의 ‘징후적 독해」」,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0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9.
- 이종수, 「역사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미학적 요소 분석」, 『미디어, 젠더&문화』 제22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2.
- 전수용, 「TV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와 이정명의 원작소설: 한류 사극의 세계화 전망」, 『문학과영상』 제13권 4호, 문학과영상학회, 2012.
- 조희정, 「문화비평: 역사적 인물 세종과 <뿌리 깊은 나무>의 성과」, 『안과 밖』 제32권 0호, 영미문학연구회, 2012.
- 주창윤, 「역사드라마의 역사서술방식과 장르형성」, 『한국언론학보』 제48권 1호, 한국언론학회, 2004.
- \_\_\_\_\_, 「역사드라마의 장르사적 변화 과정」, 『한국극예술연구』 제25집, 한국극 예술학회, 2007.

Abstract

Double-voiced discourse of Television historical-drama *Deep-rooted Tree*

Baek, Kyung-seon

Existed studies of television historical-drama *Deep-rooted Tree* discuss counter tendency by focusing on new possibility as television historical-drama mainly.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analyzing counter and dominant tendency by considering universal property of public narrative that it has duality of discourse. And it is contemplating how meaning of the drama turns through double-voiced discourse, too.

*Deep-rooted Tree* deactivates historical recode on purpose by noting blank of historical recode, especially makes Sejong unfamiliar. Reinterpretation about Sejong starts from naming him Lee Do. The drama calls in imperfect and human Lee Do instead of Sejong as a great king. It is located Lee Bangwon and Jung Gijoon at the opposite. By maximizing overcoming of adversity and confrontation of Lee Do and antagonist reinforces heroic growth narrative.

Focusing persuasion, integration in overcoming of adversity and character of the common people-Soi, Gang chaeyoon is interesting. It reflects the now-here public desire. That is the very point where it distinguishes *Deep-rooted Tree* from existed television historical-drama. By standing out this point, *Deep-rooted Tree* yields counter discourse. But it is not all. This drama has checked reflecting the now-here public desire and enforcing heroic growth narrative by deactivating history before. By enforcing heroic growth narrative, this drama produces dominant ideology beyond counter discourse. *Deep-rooted Tree*

is fantasy that meets now-here public under the power and king top of the power in history. But by running into limitation that history and heroic growth narrative, this drama can not make perfect fantasy.

Key words : collective memory, counter discourse, *Deep-rooted Tree*, dominant ideology, double-voiced discourse, heroic (growth) narrative, history, Lee-Do, Sejong, Television historical-drama, the public desire

접수일: 2014년 1월 31일  
심사기간: 2014년 2월 7일~2월 21일  
게재결정: 2014년 2월 25일